

사회

학교 앞에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

유흥가 주변 단속 '풍선효과' ... 초·중학생들 주워 들고 장난치기도

학부모들 "앗 뜨거" ... 경찰은 단속 '미적'

14일 오전 8시에 광주시 광산구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신호등 불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중학생들 뒤로 여성의 나체모습이 그려진 명확한 성매매 광고전단지 10여장이 놓여져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주운 뒤 서로 웃으며 구경하기도 했다. 중학교 옆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뒷모습 호기심 가득한 정점으로 바닥에 뿌려진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발로 차며 장난을 쳤다. 성매매 광고전단지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School Zone)'까지 침범한 것이다.

성매매 광고전단지가 경찰의 단속으로 최근 상무지구 등 광주지역 주요 유흥가에서는 눈에 띄게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이들 전단지 단속을 피해 아파트 인근 상가밀집구역과 주택가까지 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스쿨존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성매매 광고전단지의 '풍선효과'를 막고, 이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동안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경찰의 단속 영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학생들은 성매매 광고전단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주변에 뿌려져 있는 성매

매 전단지가 낫설지 않은 지 그냥 지나쳤지만, 일부 학생들은 신기한 듯 한참 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친구와 함께 등교중이던 김모(15·중 2년)군은 "아침에 등교할 때 종종 학교 주변 곳곳에 '출장 마사지'라고 적힌 야한 전단지가 뿌려져 있었다"며 "가끔 주워가서 여학생들을 보여주며 장난을 칠 때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성매매 전단에 대한 단속이 주로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 집중됐기 때문에 전단지 배포가 자연스럽게 단속이 없는 아파트단지나 상가를 찾아 이동하면서 학교 주변으로까지 퍼졌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된 성매매 전단지 단속에서 상무지구를 관찰하고 있는 광주서부경찰이 대부분의 성과를 냈을 뿐 나머지 광주지역 4개 경찰서에서는 실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박모(37·광주 광산구 월곡동)씨는 "초등학교생인 아들을 가끔 승용차로 태워다 주는 데, 올 때 마다 학교 앞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발견하곤 했다"면서 "정말 단속이 이뤄져야 할 곳은 성인들이 모이는 유흥가보다는 학교 주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4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뒤로 성매매 광고전단지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데이트족' 강도·성폭행범 징역 22년·15년 중형선고

광주지법, '전자발찌'도

심야 데이트족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2인 조 강도 일당에 대해 중형과 함께 장기감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4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와 공모 김모(3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2년, 14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과 피해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 수치심을 안겼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모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특성과 성범죄 위험성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정씨 등은 지난 6월 20일 새벽 광주시 북구 용두동 농로의 차량에서 데이트를 하던 20대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강도·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 동기인 정씨 등은 범행도구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심야에 데이트를 하던 남성을 트렁크에 가두고,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하는 등 대범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누명을 벗은 A(39)씨는 '경찰의 갑갑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담당 형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송회 사건' 피해자·가족에 207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림 부장판사)는 고(故)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를 비롯한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와 이자 등 약 20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영장 없이 강제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인이나 가족의 접견·면회를 금지당했고 고문과 회유·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불법행위

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팔과 가슴을 묶고 손가락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일명 '찌넨 고문'이나 두 손을 묶고 오금에 철봉을 끼워 매다는 '통닭구이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점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진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 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직'을 낭송한 모임을 5공화국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신호대기 차량 추돌사고

택시기사 중태·3명 부상

14일 오전 9시43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나모(47)씨가 몰던 로제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칼로스 승용차와 비스토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나씨가 크게

다쳐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씨는 1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196) 김중두



임정엽 완주군수 무죄 선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중국에 동행하는 등 당선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6월 중순에 중국 회안시 방문 때 선대위, 관계자 등과 동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술값 못줘" 호박 종업원 매달고 운전

○2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외상 술값을 요구하던 호스트바 종업원을 매달고 운전해 떨어뜨렸다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23·무직)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 앞에서 외상 술값을 받기 위해 찾아온 단골 호스트바 종업원 조모(30)씨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타자 무시한 채 차를 운전해 조씨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조씨의 가게에서 마신 외상 술값 400만원을 줄 돈이 없어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씨가)30분 동안 집앞에서 귀찮게 한 것도 모자라 운전까지 방해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

만취 주차장서 자던 40대 저체온증으로 숨져

지난 13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차장에서 박모(47·택시기사)씨가 숙 못 차림으로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이모(5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전날인 12일 밤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주차장 인근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가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문 열린 사찰 불전함은 내 것"

광주 등 3곳 돌며 시주금 300만원 훔친 2명 검거

지난 8월 6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 도심 모 사찰. 아직 동이 뜨지 않은 이른 새벽 김모(20)씨와 강모(19)씨는 숨을 죽인 채 대웅전 쪽으로 다가갔다. 이들의 손에는 사찰에서 주운 주먹만한 돌맹이가 들려져 있었다.

고개를 내밀어 대웅전 내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대웅전까지 몰래 들어가는 데

성공한 이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로 불상 앞에 놓여져 있던 목재 불전함을 힘껏 내리쳤다. 불전함 안에는 불자들이 한푼두푼 모아 넣은 시주금 10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생각보다 쉽게 돈을 훔치는 데 성공한 이들은 이후로도 최근까지 광주와 나주지역 사찰 3곳에 들어가 불전함을 부순 뒤 돈을 훔쳤다. 심지어는 한번 텃 사찰을 2차례 이

상 찾아가 시주금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렇게 훔친 시주금만 총 300여만원. 사찰 문이 불자들이 위해 항상 열려져 있는 데다가 특별히 불전함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노렸던 것이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광주지역 빈집 3곳에 들어가 금반지와 현금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사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화면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광주서부경찰은 이들이 광주 한 금은방에 금반지를 팔았다는 첩보에 따라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 /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2월 20일